

## 중한 번역의 이데올로기 조정에 대한 소고

도희진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 1. 서론

단순화를 무릅쓰자면, 그 동안 번역학의 주된 관심은 직역, 의역, 등가, 텍스트 분류와 같은 개념을 적용한 텍스트 내부 연구에서 점차 발화자, 수신자, 발주자, 권력, 이데올로기와 같은 텍스트를 둘러싼 외부 시스템과 참여자에 관한 연구로 전환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능주의 번역 이론은 처음으로 텍스트 밖의 요인인 스코포스(skopos)<sup>1)</sup>를 번역 행위와 판단을 기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체계화시켜 의역과 직역 사이에서 되풀이되는 번역학의

1) “번역의 상호작용의 역동성과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 스코포스 이론은, 번역에 있어서 도착어 텍스트의 형식은 그 무엇보다도 도착어 맥락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 혹은 ‘skopos(목적)’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이스(Reiss)와 페어메어(Vermeer)는 이 원칙을 두 가지 스코포스 원칙으로 정리했다. 첫째, 상호작용은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둘째, 그 목적은 텍스트 독자에 따라 변한다(Shuttleworth & Cowie 156-157).”

논쟁을 마감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번역의 목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번역의 참여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며 번역 행위가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2)</sup>

특히 번역자가 더 이상 가치중립적인 문화의 매개자가 아니라 특정 문화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Abdulla, Hatim & Mason, Hartman, Kim, Knellwolf, Lefevere, Olk, Puurtinen, Venuti 1998 등 참고) 이데올로기가 번역자가 수행하는 번역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중한 번역의 경우 위의 연구들이 대부분 채택하는, 종교, 성별 등이 포함된 광의의 이데올로기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상이성(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이라는 협의의 이데올로기<sup>3)</sup>라는 특수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거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일 뿐 아니라 대만과의 체제 대치 등의 요인으로 일반적인 국가에 비해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이데올로기 관련 교육이 직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 역시 북한의 존재로 인하여 정치 이데올로기에 비교적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출발 텍스트(ST) 자체에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명시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경우가 많으며, 번역자 자신 또한 특수한 학교 교육 및 미디어나 독서와 같은 사회 학습의 결과, 비록 의식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중한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자의 이데올로기가 번역 결과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역할 규명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와 함께 각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중국과 한국의 특수성 속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살펴본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강제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역할보다 번역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번역의 실제 수행자

2) Pym은 “목적에 기반하여 하는 이론의 목표는, 번역료를 받을 수 있는 목적의 것발 아래서 전투를 벌이는 용병을 배양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으며, Venuti는 “기능주의 학설은 (중략) 상업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번역자의 윤리적인 반성을 제약한다.”라고 하였다.(張南峰, 김진아, 도희진 옮김 80-82)

3) 이데올로기의 정의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인 번역자의 이데올로기가 가진 복합적인 측면을 규명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이데올로기와 번역

일반적으로 우리는 번역자를 상이한 두 언어(문화)의 매개자로 정의한다.<sup>4)</sup> 여기서 문제는 매개자로서 번역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최근 탈식민주의 번역학자인 베누티(Venuti)와 로빈슨(Robinson) 등은 실천적 사회 행위로서 번역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번역자의 역할에도 보다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The Translator's Invisibility*를 통해 이제 그 동안 감추어졌던 번역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저항적인 번역 전략의 채택을 역설했던 베누티는, 번역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하는 자국적 용어들을 탈중심화시킬 수 있는 번역이 될 수 있게끔 선택해야 한다는 번역자의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Venuti 1998, 임호경 옮김 145, 203). 로빈슨 역시 번역을 포함하여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언어 현상은 모두 이데올로기의 제약과 영향을 받으며, 억압의 도구로서의 번역의 역할에서 억압에 대응하고 정신과 육체를 해방시키기 위한 번역의 역할로 이동할 것을 역설하여, 번역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Robinson, 정혜욱 옮김 140).

번역자의 역할이 중립적인 매개자가 아니라면, 번역자의 역할에 이데올로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과연 중한 번역자의 이데올로기적 공통점은 무엇이며, 동시에 번역자마다 가진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번역에 얼마나 반영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4) 하티프와 메이슨(1990)은 번역자가 의사소통이라는 동태적 과정의 중심적 위치에 서서, ST 저자와 TT 수용자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매개란 곧 여러 문화(이데올로기, 도덕 체계, 사회 정치 구조 포함) 사이의 매개이다(223).”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 카탄(Katan) 역시 통역자와 번역자를 ‘문화 중개자(Cultural Mediators)’로 규정하고 있다. 페어메어는 번역자를 ‘bicultural’로 묘사하고 있고, 스넬 혼비(Snell-Hornby)는 이들을 ‘cross-cultural specialist’로 묘사하고 있다.(Katan 14)

## 2.1 이데올로기의 정의

이데올로기란 단어는 프랑스 철학자 드 트라시(de Tracy)가 1796년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본래는 하나의 학문, 더 정확하게는 사고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의미했다(Reboul, 홍재성 · 권오룡 옮김 15). 하지만 이를 ‘허위의식’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맑스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면서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심프슨(Simpson)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사회 그룹에 의해 공동으로 형성된 당연시되는 추정, 믿음 및 가치 시스템(Simpson, Puurtinen 05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르페브르(Lefevre)는 이데올로기를 “인간의 행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형식, 관습 및 신념의 틀(that grillwork of form, convention, and belief which order our actions)”이라고 하였다. 르페브르는 또한 문학사조(poetics), 이데올로기 및 번역의 관계에 대하여 “언어적 고려 사항이 이데올로기 그리고/또는 문학 사조와 관련된 고려 사항과 충돌하는 경우, (중략)후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고 하였으며, 이 때 이데올로기는 번역자 스스로의, 또는 후원자가 번역자에게 부여한 이데올로기를 뜻한다(Munday, 정연일 · 남원준 옮김 184).

한편 압둘라(Abdulla)는 이데올로기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협의의 이데올로기란 주로 맑시스트의 개념으로 정치적인 함의이다. 압둘라 자신은 광의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채택하여 “자신, 타자 및 기본적인 세계의 구성에 관하여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안이나 추정에 대한 언급(Abdulla 02)”으로 보았다.

이러한 광의의 이데올로기는 문화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up>5)</sup> 실제로 르페브르는 자신의 번역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관한 텍스트를 소개하는, *Translation/History/Culture*의 제1장 *The role of ideology in the shaping of a*

5) 페어메어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모든 사람과 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규범과 관습의 전체적 환경이다.”라고 하였다(Nord, 정연일 · 주진국 옮김 33). 또한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글턴의 6가지 정의 가운데 첫 번째는 “사회 생활에 있어 사상, 신념, 가치의 일반적인 물질적 생산 과정을 의미하며, (중략) ‘문화’란 용어의 폭넓은 의미에 가깝다 (구승희 162).”

translation의 서두에서 “번역은 진공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번역자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문화 속에서 직분을 다한다. 스스로와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들이 번역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Lefevere 14).”라고 하여,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번역학에서 ‘이데올로기’는 주로 ‘하나의 문화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가치관’으로 사용되는 반면, ‘문화’는 주로 ST 문화와 TT 문화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공동체의 관계에 관한 용어’로 사용된다.<sup>6)</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문화를 매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문화에 속한 번역자가 가진 복합적인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보다는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채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데올로기를 압둘라와 같이 “자신, 타자 및 기본적인 세계의 구성에 관하여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안이나 추정에 대한 언급”으로 정의하며, 이를 광의의 이데올로기로 보고, 이 가운데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협의의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여, 이러한 범주 속에서 중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조정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2.2 이데올로기와 번역 그리고 번역자의 관계

그렇다면 이데올로기가 번역 또는 번역자(의 선택)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번역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일단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페어클로프(Fairclough)는 단어 선택이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반영인 경향이 있으며, ‘대안적 단어 변환(alternative lexicalisations)’ 역시 여러 다른 이데올로기 입장에 기인하기도 한다고 하였다(Hatim & Mason 89). 파울러와 크레스(Fowler & Kress)는 언어적 구

6) “작품은 진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품은 반드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다. 작품을 하나의 문화 시스템에서 다른 문화 시스템으로 번역하는 것은 결코 중립적이고 단순하며 투명한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강렬한 사명감을 가진 침입 행위이다(Bassnett 160~161).”, “상대적으로 큰 문화는 번역에 중심적 역할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국적으로 들리는 언어에 덜 관용적인 경향이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문화는 번역에 더 의존하며, 동시에 이국화된 언어뿐 아니라 여러 언어의 존재에 대해서도 더 관용적이다(Pym).”

조가 사회적 구조와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심지어 “언어적 의미는 이데올로기와 불가분(Fowler & Kress, Kim 185에서 재인용)”이라고 하였으며, 반 디크(Van Dijk) 역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실천 행위, 즉 텍스트와 말의 구조를 계획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통제한다고 하였다(Van Dijk 1995a 21).

언어가 이데올로기와 불가분이라면, 번역 역시 그러할 수밖에 없다. 심프슨(Simpson)은 “저자나 번역자가 텍스트를 생성할 때의 언어적 선택 방식은 1. 사건을 묘사하는 특정 관점을 형성할 수 있고, 2. 저자의 의견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3. 독자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Simpson, Puurtinen 05에서 재인용).”고 하여 창작과 번역을 막론하고 언어적 선택, 즉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분석하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은 반드시 의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실상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의식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튀세(Althusser)의 경우 이데올로기를 지배적 계급에 의해 발휘되는 의식적 과정으로 보았지만, 이글턴(Eagleton)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적인 것임에도 맑시스트(Marxist)가 이를 명시화한다고 비판하였다(Abdulla 01-02). 따라서 번역자의 이데올로기 역시 의식적인 측면과 함께 무의식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중개(mediation)는 텍스트 생산 과정에 당시의 믿음과 목표를 심어주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무의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며, 번역자의 선택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종종 무의식적으로도 이루어진다(Abdulla 03).

게다가 번역의 경우 이데올로기는 텍스트뿐 아니라 번역자의 입장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티모츠코(Tymoczko)는 동일한 텍스트를 사용하더라도 번역마다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번역 관련 이데올로기는 텍스트에 존재할 뿐 아니라 번역자의 목소리와 입장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Tymoczko 183).

결론적으로 언어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만큼 이데올로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언어 사용의 일종인 번역 역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데올로기는 텍스트와 번역자 자신과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며, 특히 번역자의 이데올로기는 의식적인 사용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작용한다.

20세기 후반부터, 한 사회의 주류 사상, 고정관념, 정서 등의 이데올로기가 번역물에 구체적인 반영된 사례나 번역자의 이데올로기가 번역물의 선정과 번역 전략에 미친 영향 등이 연구되면서, 이데올로기와 번역자 및 번역물의 밀접한 상관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저서가 비교적 많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베누티는 아리스토텔레스 번역본을 분석한 존스(Jones)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이워터(Bywater)의 1909년 번역본에 번역자 자신의 이데올로기, 즉 낭만주의적 개인주의의 작업을 감추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번역자의 이데올로기, 즉 낭만주의적 개입은 당시의 학술적 조류의 영향이며, 존스의 연구 역시 실존주의의 출현에 따르는 결과물로 베누티는 해석하였다(Venuti 1998, 임호경 옮김 122-125).

또한 압둘라라는 문학 번역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부과되는가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토마스 만, 피츠제럴드 등의 예를 통해 번역자의 이데올로기가 저자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거나 번역자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전략이 저자의 전략과 벗어나는 경우를 보여주었다. 그는 번역자의 선택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언어적 차이에 기원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문화나 정체성 궁극적으로는 이데올로기 층위에 자리 잡고 있는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Abdulla 09-13).

특히 르페브르의 경우 “안네의 일기”를 둘러싼 개작과 번역을 다룬 장에서 번역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페미니즘(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현실에 대한 안네의 언급 삭제), 고정 관념(어린 소녀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수용 독자의 정서(개쉬타포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3인칭 대명사로 변경) 등을 의미한다(Lefevere 59-72).<sup>7)</sup>

이데올로기와 번역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페미니즘으로서, 번역자라는 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번역자의 민족, 계급, 정치적 견해 및 성별의 중요성을 지적해냄으로써(Xu 16), 이데올로기의 의식적 측면을 가장 분명하게 부각해내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변수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성과를 거두

7) 르페브르는 번역을 원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약 요건이 이데올로기와 시학(poetics)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시학은 문학 시스템 안에서 번역문을 통제한다면, 이데올로기는 시스템 밖에서 시학의 영향이 전달되는 방법을 결정한다.(Hatim 62-64)

었다.

대표적인 성과물로, 하트만(Hartman)은 러시아 출신 젊은 여성 화가의 불어 판 일기의 출판 및 번역 과정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통해 시대적 억압에 의해 왜곡된 젊은 여성의 ‘진실된 자아’가 후에 페미니스트 번역자와 전기 작가에 의해 밝혀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넬울프(Knellwolf)는 프랑스 과학자 겸 작가인 폰트넬(Fontenelle)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남자와 여자의 문답 형식으로 여성들에게 소개하는 책의 두 영역본을 비교하여, 여성 번역자는 지나치게 무지한 여성 캐릭터에 수정을 가한 반면 남성 번역자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감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학을 여성이 거론하는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는, 번역자의 선택이 표면적으로는 언어적 차이에 기인하는 듯이 보여도 실제로는 문화, 궁극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따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발주자, 출판사 등 제도적 구조나 사상적 조류, 고정관념 등 번역 외적 요인으로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결국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는 주체는 번역의 주체인 번역자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번역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번역 결과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가는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티모츠코는 번역 이데올로기가 사실상 번역자의 위치(position)의 결과라고 하면서, 번역자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번역물 자체의 이데올로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 경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Tymoczko 183-185).

### 3. 중한 번역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조정의 예

이렇게 이데올로기와 번역 그리고 번역의 관계의 긴밀한 관계는 여러 각도로 분석되고 규명되었지만, 중한 번역 분야에서는 아직 이 분야의 연구가 시도된 바가 없다.

그러나 통역대학원에서 한중과 학생들에게 번역을 가르치다보면, 중국어 텍스트 고유의 (협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또는 번역자 자신의 (광의의) 이데올



로기적 편향으로 인한 번역 조정의 양상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실제 수업 시간에 진행된 번역 실험 결과를 예시로 제시하여 번역자의 이데올로기와 번역 결과물에 나타난 번역 전략의 조정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통역대학원 1학년 1학기에 한중과 학생을 대상으로 2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진행한 실험 결과이다. 피실험자 수는 모두 13명이었으며, 실험은 약 5일의 시간을 주고 미리 ST를 나누어 준 다음 번역을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실험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참고할 수 있었다.

13명의 피실험자 가운데 대부분(10명)은 한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1년~2년 정도 중국에서 어학 연수를 경험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학생들이었으나, 이 가운데 3명의 피실험자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대학 과정을 이수한 한국 국적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다.(각각 중국 2명, 대만 1명)

번역 결과에 나타난 번역자의 이데올로기 조정 전략에 대해, 그러한 조정 전략을 사용한 이유를 피실험자에게 번역 실험 이후 직접 질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데올로기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3명의 피실험자의 번역문 가운데 상이한 번역 전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두 개의 번역문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으며, 피실험자의 번역문에서 조정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 3.1 광의의 이데올로기 조정 사례

텍스트 1(별첨1)의 번역을 통해 연구자는 광의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2가지 변수에 대한 번역자 번역 결과물에서 번역 전략 조정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각각 진화론에 대한 입장과 소수자에 대한 태도이다.

<사례1>

원문) 從我們的祖先----生活在森林里的快活的猴子走出森林的那一天起,  
受自然环境的制约就逐渐的减少。

학생1-1) 우리의 조상인, 숲 속에서 즐겁게 살던 원숭이가 숲을 벗어난 그 날부터, 자연 환경의 제약이 점차 줄어들었다.

학생1-2) 삼림지대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살던 인류의 조상 유인원이 문명사회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자연환경으로부터 받던 제약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사례1>의 번역 실험 이후 학생1-2에게 원문의 ‘원숭이’를 ‘유인원’으로 번역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생1-2는 기독교인으로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하는 진화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창조론을 믿고 있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원숭이’를 ‘유인원’으로 의식적으로 고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중국어 원문의 ‘猴子’는 글자 그대로 ‘원숭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1-2를 제외한 12명은 모두 원숭이라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학생1-2은 진화론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번역자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를 ‘유인원’으로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번역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례2>

원문) 在人类社會的早期, “自然选择”与“社會选择”共存, “自然选择”的比重大于“社會选择”的比重, 野蠻人、身体软弱或智能低下的人很快就被淘汰, 而存活下來的人是健康的、精力充沛的。

학생2-1) 초기 인류사회에서 자연선택과 사회선택은 공존하였다. 당시 전자가 후자보다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컸기 때문에, 야만인, 노약자, 저능아들은 점차 경쟁에서 도태되었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학생2-2) 초기 인류 사회에서, ‘자연선택’과 ‘사회 선택’은 공존하였지만, 자연선택이 사회선택보다 큰 역할을 하였다. 미개하거나 허약하거나 약삭빠르지 못한 자는 금세 도태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이들이었다.

<사례2>의 경우 원문의 해당 중국어를 한자로 읽으면 ‘야만인’이었기 때문에, 역시 나머지 12명의 피실험자는 이를 ‘야만인’으로 그대로 옮기고, 원문에 명사로 표현되지 않은 나머지 두 부류를 이에 맞추어 명사(각각 노약자와 저능

아)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학생2-2는 다른 피실험자와는 달리 ‘미개하거나 허약하거나 약삭빠르지 못한 자’와 같이 번역하였다.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학생2-2는 ‘저능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약삭빠르지 못한 자’로 번역하였으며, 그 앞에 부분만 명사형으로 할 경우 어색하다고 생각되어 밑줄 친 부분을 모두 서술형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2-2는 ‘저능아’와 같이 소수자를 폄하하는 표현을 도착어 표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따라 이를 번역문에서 조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해당 표현의 앞부분까지 바꾸는 적극적인 조정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례1>과 <사례2>는 번역자가 자신의 종교적 또는 사회적 신념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 조정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3.2 협의의 이데올로기 조정 사례

텍스트2(별첨2)의 번역 실험을 통해서 2가지 협의의 이데올로기 범주에 속하는 중한 이데올로기 조정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범주화하면 각각 이념적 편향(사회주의/자본주의)과 대만에 관한 입장(친중국/친대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3>

원문) 從50年代至70年代, “大陆”一词在台湾颇有些反动的味道,

학생3-1) 50~70년대 대만에서 ‘대륙’이란 단어는 반동의 의미를 지녔다.

학생3-2) 50~70년대 대만에서 ‘대륙’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례3>의 번역 결과 중국에서 대학 과정을 마친 학생3-1는 ‘반동’이라는 사회주의 용어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용하였지만, 정규 교육 과정을 한국에서 마친 학생3-2는 ‘반동’이라는 사회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부정적인 의미’로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번역자의 교육 또는 중국 이데올로기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번역자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번역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사례4>

원문) 內地坚持一个中國的立場，而台湾一些人却狂叫“一中一台”，

학생4-1) 중국은 지금까지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대만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크게 외쳐댔다.

학생4-2)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대만인들은 대만독립을 외치고 있다.

<사례4>의 번역 실험 결과, 정규 교육 과정을 주로 한국에서 마친 학생4-1은 ‘一中一台’를 글자 그대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으로 번역하였지만, 중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학생4-2는 ‘대만 독립’이라고 번역하였다. 의미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만 독립’이란 현재 중국의 입장, 다시 말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이데올로기를 이면에 깔고 있는 표현이다.

학생4-2는 학생4-1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정규 교육 과정 및 기타 독서나 미디어와의 접촉 등을 통해 중국 체류 기간이 짧은 학생에 비해 중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비교적 공감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조정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협의의 이데올로기 범주의 번역 실험 결과의 경우 광의의 이데올로기 범주의 번역 실험 결과인 <사례1>이나 <사례2>와는 달리, 피실험자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어,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 조정 전략으로 유추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협의의 이데올로기(정치 관련 이데올로기)라는 특수성이 존재하

는 중한 번역을 대상으로 번역 결과물에 대한 번역자의 이데올로기 변수에 따르는 조정 현상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험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본론 2장에서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이데올로기와 번역 및 번역자의 관계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본론의 3장에서는 통역대학원 한중과 학생들을 피실험자로 하는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광의의 이데올로기와 협의의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한중 번역 조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는 자신의 종교적 또는 사회적 신념과 같은 광의의 이데올로기 및 이념적 편향 또는 대만에 대한 입장과 같은 협의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중한 번역 과정에서 조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실험의 경우 피실험자의 이데올로기 변수를 미리 확인하여 충분한 설명력을 가질 정도의 숫자를 확보하지 못 하였으며<sup>8)</sup>, 분석 방법 역시 의미 구조와 어휘 스타일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sup>9)</sup> 이데올로기 변수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는 피실험자의 숫자 확보와 보다 넓은 범주의 분석 방법의 도입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8) 이는 현재 통역대학원 한중과 학생의 수가 학년 당 10명 내외이며, 이 가운데 한국의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특수한 교육 및 성장 과정을 거친 학생 수가 매우 적다는(학년에 따라 0~3명) 객관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9) 이데올로기적 담화를 분석하는 틀로 Van Dijk(1995b 145)는 ① phonological structures ② graphical structures ③ overall ordering and size ④ syntactic structure ⑤ semantic structures ⑥ lexical style ⑦ rhetoric ⑧ schematic or superstructures ⑨ pragmatic ⑩ interactive의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구승희. 2002. 「이데올로기와 담론」. 『이데올로기』, 151-197.(D. McLellan. 1986. *Ideology*. Minneapolis: Open University Press)
- 김진아 · 도희진 옮김. 2006. 『번역학비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張南峰. 2004. *中西譯學批評*.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서울: 열린책들(L. Venuti.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New York: Loutledge)
- 정연일 ·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J. Munda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 Theories & Applications*. New York: Loutledge)
- 정연일 · 주진국 옮김. 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C. Nord. 1997. *Translation as a Purposeful Activity: Approaches Explained*. London: St. Jerome)
- 정혜욱 옮김. 2002. 『번역과 제국』. 서울: 동문선(D. Robinson. 1997.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홍재성 · 권오룡 옮김. 2005.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O. Reboul. 1980. *Langage et Ideolog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Abdulla, A. K. 1999. "Aspects of Ideology in Translating Literature." *Babel*. 45:1, 1-6.
- Baker, M.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London.
- Bassnett, S. 1993. *Comparative Literature: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Hartman, K. 1999. Ideology, Identific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Feminine. *Le Journal de Marie Bashkirtseff*. in *The Translator* 5:1, 61-82.
- Hatim, B.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New York: Longman.
-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New York:

- Longman.
- Katan, D. 1999.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Kim, Y. S. 2004. *Frame Transfer in Translation of English into Korean: An Interactive and Cognitive Approach to News Trans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Knellwolf, C. 2001. Woman Translators, Gender and the Cultural Context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in R. Ellis & L. Oakley-Brown(eds). in *Translation and Nation: Towards a Cultural Politics of Englishnes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Lefevere, A. 1992. *Translation/History/Culture: A Sourcebook*. London: Routledge.
- Puurtinen, T. 2003. "Explicitating and Implicitating Source Text Ideology."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4(1): 53-62.
- Pym, A. 2004. Loc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lation Studies: Overlaps in the Digital Divide?. From World Wide Web/<http://www.fut.es/~apym/>
- Shuttleworth, M. & Cowie, M.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Tymoczko, M. 2003. Ideology and the Position of the Translator. In M. C. Perez. ed. *Apropos of Ideology: Translation Studies on Ideology-Ideologies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 Northampton: St. Jerome Publishing.
- Van dijk, T. A. 1995a. Discourse Analysis ad Ideology Analysis. In C. Schäffner & A. Wenden(eds.), *Language and Peace*.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17-33.
- Van dijk, T. A. 1995b. Ideological Discourse Analysis. In E. Ventola & A. Solin. ed. *New Courant*(English Dept, University of Helsinki), 4, 135-161.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Xu, L. (2004). "Rewriting" in the Name of Feminine: The Significance of the Feminism Translation Theory in the Study of the Translator's Subjectivity. in *Chinese Translators Journal* 25:4, 16-19.

번역 실험에 사용된 중국어 원문 출처

冯志伟. 2000. *汉语新词语与社會生活*. 语文出版社.

张思宁. 1998. *发现自我*. 辽宁民族出版社.



#### <별첨1-텍스트1>

從我們的祖先---生活在森林里的快活的猴子走出森林的那一天起，受自然环境的制約就逐漸的減少。隨着社會的發展，受社會环境的制約在逐漸的增加，“自然選擇”逐漸被“社會選擇”所取代。然而，“社會選擇”不是“自然選擇”的延續，“社會選擇”與“自然選擇”的目的有着本質的不同。“自然選擇”的目的是讓優秀的基因有更多的機會傳給下一代，存在是以同類的滅亡為前提的，進化是生物基因的進化。“社會選擇”的目的是給人類的个体提供更多的發展機會，進而加快社會進步的進程。在人類社會的早期，“自然選擇”與“社會選擇”共存，“自然選擇”的比重大於“社會選擇”的比重，野蠻人、身體軟弱或智能低下的人很快就被淘汰，而存活下來的人是健康的、精力充沛的。所以，人類社會也不乏競爭的殘酷。現代社會總是千方百計地阻礙淘汰的進行，接種牛痘把數以百計的可能被天花收拾掉的人保存了下來。文明社會里的一些脆弱的成員不僅生存，照樣繁殖他們的後代。“社會選擇”讓每一個人有更多的機會發展自己，進而加快社會的進程。(張思寧, 1998, p.3-4)

#### <별첨2-텍스트2>

內地與港台社會制度和意識形態不同，往往通過一些特有的詞語反映出來。從50年代至70年代，“大陸”一詞在台灣頗有些反動的味道，當時台灣一小撮人會狂罵“反攻大陸”，“大陸”成為台灣的專有稱呼。改革開放以後，內地同胞也使用“大陸”稱呼，但官方的稱呼一直是“祖國大陸”、“中國大陸”，有限度地認可“大陸”這個稱呼。內地堅持一個中國的立場，而台灣一些人却狂叫“一中一台”，去年，李登輝公然提出海峽兩岸是特殊的“國與國關係”，在分裂祖國的道路越走越遠，理所當然地遭到了兩岸同胞的痛斥。香港稱呼中國大陸為“內地”。雖不十分準確，但比“大陸”聽起來順耳。本書與港台並舉時稱內地，單獨行文則稱“國內”。(馮志偉, 2000, p.29)

[Abstract]

## A Research on the Ideology of Chinese-Korean Translation

Do, Hee Jin

(Seo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ne of distinctive characters about translating Chinese into Korean is that it implicitly contains ideology not only in a broad sense (such as religion or gender) but also in a narrow sense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socialism or capitalism). More specifically, people in China, a socialist state, have been given relatively more intensive ideology education in school or from mass media due to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with Taiwan. South Korea is also comparatively sensitive to political ideology related to North Korea issues. Accordingly, a starting text (ST) often takes on an ideological character implicitly or explicitly and translators themselves tend to incline toward certain ideology, sometimes unconsciously, as a result of school education or social learning from media, books and so on.

It is considered meaningful to make a study on how translator's ideology is reflected in the outcome because it can not only figure out a role of ideology in the translated context in general, but also help us comprehend ideological issues of South Korea, a capitalist state and China, a socialist nation, both of which have faced unique political situations.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an attempt to illuminate an adjustment role of translator's ideology, based on translations turned Chinese into Korean, which often contain political ideology under the unique political situations.

As a basis of the study, the second chapter explains a concept of ideology and relations among ideology, a translation, and a translator known by the precedent studies. Based on researches of the students in the Korean-Chinese

department at the interpretation graduate schools, Chapter 3 addresses the specific examples of the adjustment role of the ideology both in the broad and narrow sens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subjects are likely to adjust their translations, influenced by the broad sense of ideology such as religion or social beliefs, and the narrow sense of ideology like political inclinations or opinions about the Taiwan Strait issue.

This study, however, does not have enough subjects to ensure the role of translators' ideology as an independence variable. The analysis is also restricted to meaning-structure and vocabulary. Therefore, it is suggested examining enough subjects to figure out more definitely the role of ideology and widening the scope of analysis in further studies.

▶ Key Words: Chinese-Korean Translation, Ideology, Shift, Adaptation

도희진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중과 조교수

doheejin@korea.com

관심분야: 중한번역, 이데올로기와 번역

논문투고일: 2008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12일